

고령자 사회복지의 지역복지(1)*

— 한,일의 지방자치제의 비교 연구 서설 —

히구마 다케요시 · 서 영진 · 강 현주

(접수 2000년 5월 10일)

목 차

서 설	조사연구 목적
1	한일 고령자 복지 정책 . 역사
2	의식조사에 대한 한,일의 개관
1)	양케이트 조사지역 특징
2)	피 조사자의 속성
3)	지역생활의 매력도, 만족도
4)	단순집계에서 본 총괄
5)	여러 상관 관계에서 본 가족 세대관

서 설 조사 연구의 목적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고도 경제성장의 트렌드가 자유로워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이다. 당시, 높은 국채 의존도에 따른 재정사정의 곤란으로 경제사회의 변천과 복지요구가 높아지는 등, 다양화에 의한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개편은 90년

*서설 및 한일 고령자 복지정책, 역사는 히구마 다케요시, 서 영진이 담당, 의식조사는 미야모토 신이치, 강 현주, 히로타 도모요가 담당. 양케이트의 분석은 가와테 히데후미, 히로타 도모요가 담당했음. 이 조사연구는 히로시마 슈도 대학 종합연구소 조사연구비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1999년 10월 12일의 히로시마 슈도 대학 종합연구소에 고령자 사회복지의 지역복지(1)로 접수시킨 한국어 번역판입니다.

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93년 4월, 지금까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
에 의하여 조치권한이 정부에서 자치체에 이양되었다.

핵심은 슬로건으로 내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분권
화” 그리고 “지역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게 있어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사회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자립생활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정부, 그리고 지방자
치체에 의한 재원 확보는 미지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의해 계획된 서비
스의 제공만을 위한 맨파워의 확보는 정부에 의해 매뉴얼화 돼버린 수치에 불
과한 것이 되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이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도 그 예를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였다. 구체적
인 일상의 생활보장이 개선 대응과의 사이에서 타임링크가 생기는 불안과 곤란
이 함께 한 것이다. 노후의 생활보장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도시구조의
장치로서 모든 설비가 고령자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번 공동연구조사 “고령자 복지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는 전쟁 후 양국의 경
제발전에 다소의 타임링크가 있지만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앞선
경험이 한국에서도 확인 되고있는 경제사회발전의 경험처럼 일본의 고령자복지
연구가 경험과학으로서 한국의 복지정책에 다소 공헌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 일
본에 있어서의 정책의 착오에 새로운 방법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1976년 시점에서 한·일 간의 경제격차는 1인당 GNP는 5.9배, 소비구매력 평가
에서 1인당 소비지출은 2.9배였다. 1976년 이후의 일본은 안전 성장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소산소자화(小産小子化)가 시작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6-1994년의 평균성장률이 약10%의 고도성장기였
다. 그러나 1973년부터 심의를 계속 해 온 국민복지연금은 정부의 경제성장 우
선과 국민부담능력의 어려움을 이유로 1988년까지 실시가 보류됐다.

당시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 약2.3%, 1994년에는 그 당시의 약 절반까지

저하했고, 지금은 소산소자(小産小子)의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은 1994년의 거품 경제 붕괴 이래의 장기 불황에 들어갔고 한국은 1980년 중순부터의 3저 호황기 (원유가, 국제금리안정, 달러 안전)이라는 안전성장기를 맞이했다. 한.일의 경제력은 1인당 GNP비로 4.3배, 소비 매력력 평가에서 본 1인당 소비지출은 1.66배를 기록해 70년대에 비교하면 축소했다.

한.일의 사회보장 급부와 지출의 구성비율은 크게 틀리다. 사회 보장 순수 부담율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크다. 그리고 “보건의료”를 포함하여도 일본이 크다. 그러나 부담율을 엄격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제도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조사 연구의 중요한 관점은 양국에 있어서의 가족관 그리고 지역관, 고령자 부양에 관한 사회적 책임관(재원의 부담)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 라이프 스타일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재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조사 연구의 목적도 역사, 문화, 기후, 풍토, 습관 등에 있어서 비교적 유사성이 큰 한,일 양국을 비교함으로써 구미 선진제국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티교 문화권인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통하여 21세기의 최대의 과제인 고령자복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양과의 차이, 또는 한일의 차이와 공통성을 찾아내 본격화하는 문제점을 밝히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이다.

현재, 고령화율이 일본은 16%, 한국은 7%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2020년에는 한국의 베이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서,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의 5.1%에서 일약 13.2%로 상승함으로써 (한국통계청 1996), 노동연금수급자가 급증하는 고령자 개호, 간호요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며, 이에 따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부담액에 합의를 이룰 것인가 등이 최대의 과제이다. 그래서 양국의 고령사회시대를 목전에 두고 자원문제뿐 아니라 노후 생활에 관한 가족관과 지역관의 조사연구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1. 한·일 고령자 복지정책 및 역사

1)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전쟁 후(1945년)일본의 부흥목표는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었다. 서구형의 “복지국가” 만들기가 목표였다. 1960년 후반에는 그 목표가 현실에 가까워 졌으며, 1인당 소득은 서구의 수준을 넘어섰고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1위가 되었다. 말하자면 UN의 “고령화 사회” 즉, 총인구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에 달한 것은 1970년이다. 25년 후인 1995년에는 14%를 넘었다. 같은 과정을 영국은 45년, 서독 45년, 스웨덴 85년, 프랑스는 115년 걸렸다. 일본의 문제는 그 속도의 빠름에 있었다. 1979년 처음으로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말이 사용되어, “국가”에서 “사회”로 라는 전통적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다.

원래 전쟁 전에도 그러했지만 일본의 전통적 마을(농촌사회), 가정사회에 있어서 복지의 상호 부조제도는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양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 후, 매우 빠른 속도로 농업(농촌)에서 공업(도시)으로 산업구조가 전환(인구진출)되는 과정에서 마을사회, 가정사회가 붕괴해, 도시적인 커뮤니티안에서 사회복지를 새롭게 재구성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약하여 말하면, 전쟁후의 복지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생활 곤란자)대책으로서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정신 지체자에게 중심을 두었다. 고령자복지, 그 중에서도 개호 등은 각 가정에서, 지역 사회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예를 들면,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계획은 관심이 낮았다. 그러나 도시화, 핵가족화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해 나가는 중에서 개호체제, 인원면에서는 가정, 지역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종합적인 고령자 지역복지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 됐다.

1986년 “장수사회 대책”, 1988년 “복지비전”을 후생성, 노동성이 발표하는 등

사회에 대응하는 시책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 사업비 총액 6조엔 이상을 투입, 실시하게 됐다.

홈헬퍼의 증원, 특별 양호 노인홈의 증설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이른바 “골드플랜”이 책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사회보장 급여비는 44조 6000억엔, 국민소득의 1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cf.덴마크는 39.7%)

이것은 20세기 중에 설비해야할 보건복지의 기본계획이며, 장래 고령자 복지의 비전을 수량목표로 표시하는 재택복지의 지원체제를 선진제국과 비교했을 경우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1994년에는 1.이용자 본위, 2.보편주의, 3.종합서비스의 향상, 4.지역주의 등의 4개를 기본 이념으로 한 1995년부터 10년간의 정비계획 “신 골드플랜”이 책정되었다.

2)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한국은 교육, 경제, 인권 등에 있어서 균등의 이익을 가지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의 오랜 역사 속에 독특한 복지사상을 만들어 왔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 아래 모든 구제, 구호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선교사에 의한 복지시설, 장애아 학교 등이 설립되어 민간의 자선사업도 활발하였다. 그리고 일제시대(1910-1945)의 식민지 정책 중에서도 치안수단으로서 구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군정시대(1945-1948)의 구제사업 중에서도 국내의 민간 사업, 해외의 민간 자선활동 등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기초가 만들어 졌다.

전쟁후의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은 전쟁후의 일본처럼 생활 곤란자에 대한 구제로 시작되었다. 본격화된 것은 급격한 공업화가 시작되는 1960년대 초두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의료연금관계의 입법화가 차례차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취약해, 사회 보장 제도는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제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 성장 우선, 국민의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법은 있었지만 제도의 실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채 80년대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노인 복지법이 1981년에 적용돼, 1973년 이후 심

의가 계속되어 오던 국민연금도 1986년에 제정되었다. 1988년에는 10명 이상의 사업소, 1992년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소 노동자로 대상이 확정됐다. 1995년에는 농어민 연금제도도 실시돼, 사회보장제도는 대체적으로 갖춰 졌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의 3개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보장 제도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취업재해 보상보험의 4종류, 공적부조로서는 생활보호, 의료보험, 재해, 재난 구호 등, 사회복지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복지, 부랑자 복지의 5종류의 주요 사업이 있다. 고령자 사회복지 제도는 1999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으며, 2022년에는 14%의 고령화가 된다는 예측 안에, 지금까지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시설 서비스에서, 일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 복지시설의 확대와 충실, 경로연금제도,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재택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의 사회 참가의 확대와 여가 이용의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치매노인 대책으로서 “치매노인 10개년 계획(1996-2005)”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 전문 의료병원의 확대, 예방, 관리 등과 재택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방문 서비스센터의 충실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노우에 히사코(1992년)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성립과 실시를 크게 3개로 나누고 있다. 제1기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한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분야다. 이때는 긴급 구제적인 제도가 많이 실시되었다. 제2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의료와 연금의 사회복지입법에 집중되었다. 제3기는 1980년대말 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연금의 성립, 실시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6.25전쟁, 미군이 주둔하는 등 특이성 있다. 따라서 현 외성(1994년)에 따르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패쇄적이면서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민주주의적 유연성이 보이지만, 한국은 패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상의하달식의 과정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부분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정부 주도적 형성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하겠다.(p-190)

1997년 10월(UN은 1991년 제정)노인의 날을 제정, 경로와 효행의 의식을 높이는 기념일로서, 10월의 한달간을 경로월간으로 정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수당은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이 많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가 6대 4의 비율로 부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충분한 생계보조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혼자 사는 노인의 개호에는 정부가 고용한 홈헬퍼가 있지만,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재택생활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 연구에서 미크로적 경제면으로 본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자본 스톡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한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령화에 의한 저축률 저하로 저축, 투자 밸런스 악화가 우려되며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크로면에서는 거동불능 노인, 치매노인의 증가, 간호 개호부담의 증대 등에 따른 경제 압박등 현실적인 문제가 논의되었다. 거기에 한,일 양국에 있어서 각각의 경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의식조사에서 본 한.일의 개관

1) 앙케이트 조사 지역의 특징과 조사 방법

(1) 앙케이트 조사 지역의 특징

A) 일본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히로미초

우와지마시는 시코쿠지방의 에히메현 서부에 위치하며, 시의 서부를 제외한 삼방면은 급격한 산지로 둘러 싸여있다. 서쪽의 우와해연안은 강과 반도가 복잡히 교착하는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다. 시가지는 지형상, 동남부가 다츠노강과 간다강이 형성되는 삼각주 위에 입지하고 있다. 지형의 다양성과 함께 우와지마시의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히로미초는 우와지마시에 인접한 마을

이다.

인구 추이는, 1960년대에는 고도성장기로 도시 유출이 현저한 현상이 보였으나, 이후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우와지마시는 7만명대를 유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8년 4월에는 64,782명으로 감소하며, 소자고령화의 전형적인 지역이 되었다.

산업구성은 생산보다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중심은 제3차 산업이다. 1993년 3차산업의 구성비는 64.1%, 1995년의 소득비율은 70.6%이다.

고령화의 스피드는 전국 평균을 비교한 경우, 에히메현의 고령화율이 10%를 넘은 것은 1975년이다. 전국 평균 10%를 넘은 때가 1985년 이었던 것으로 볼 때, 에히메현과 우와지마시가 전국비율보다 10년 빨랐다.(1995년 국제조사)

1999년 3월 현재 우와지마시의 고령화율은 22.52%, 히로미초는 30.19%이다. 이것은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밝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볼 경우 2010년의 추측치가 되며, 고령화 문제가 한층 선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유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크다. 고령화 문제는 다양화하는 지역사회의 조직 안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 일, 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시야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9년도의 국제조사에서 우와지마시의 총인구는 66,196명, 전세대수 25,797세대, 1세대당 인원수는 3.89인, 총 세대수중 65세 이상의 친족이 있는 세대수는 36.3%, 65세 이상의 친족인원의 총 세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특히 노인부부만의 생활자를 포함하면 76.7%로 높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세대는 우와지마시 1987세대, 히로미초 375세대(1999년)이다. 친인척이 같은 자치체에 있는 사람은 우와지마시가 1680세대, 히로미초가 221세대로 10%를 넘지 않는다. 세대수에 차지하는 구성비, 증가율은 모두 높으며, 개호력의 면에서 생각할 경우, 앞으로 개호 노인이 재택생활을 계속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응하는 니즈의 충족이 요구된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장수화에 따라, 혼자 사는 인구는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특히 고령자 인구 중에서도 이제부터는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추이는 고령자 전체에서 1.23배가 증가했으며, 후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배나 증가했다. 앞으로는 후기 고령자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만의 세대”가 보다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B) 한국- 전라남도 나주시, 강진군

나주시와 강진군은 한국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 제5의 도시 광주시의 위성도시로서 근년에 농공 주택단지의 색을 진하게 띠고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지역의 남측을 제외한 3방향의 노령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원지역이다. 그리고 양호한 항만은 옛날부터 해양과 대륙지역을 이어주는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기후는 따뜻하며, 이 지역은 현재에도 쌀 농사와 과수, 축산, 수산 분야의 중요한 산지이다.

인구추이는 1970년이래, 경제성장기를 통하여 도시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나주시는 1970년 당시의 인구 226,975명(고령화율 4.49%)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11,719명(고령화율 13.83%)로 한국의 2020년 추계고령자인구 13.2%를 이미 웃돌고 있다. 그리고 그 근교의 강진은 1970년 고령화율 5.25%에서 1998년에는 15.35%까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장수화가 진행중인 나주시는 남성의 고령자수가 1970년부터 1998년 사이에 1.4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1.54배로 늘어났으며 혼자 사는 노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진도 마찬가지로 남성 1.24배에 대해서 여성은 1.31배로 여성의 장수율이 높다. 한국전체에 비교하면 30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한국통계청,1998년)

산업구조는 나주시의 경우 제1차 산업이 1995년 51.70%, 1998년 48.7%, 제2차 산업은 1995년 15.50%, 1998년 16.50%, 그리고 제3차 산업은 1995년 32.80%, 1998년 34.8%로 약 과반수를 제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제1차 산업이 1995년 73.0%, 1998년 69.5%, 제2차 산업은 1995년 8.0%, 1998년 8.8%, 그리고 제3차 산업은 1995년 19.0%, 1998년 21.7%로 약 7할을 제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와 강진군은 일본의 지방도시 및 근교와는 달리, 산업생산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주시, 강진군과 우와지마시, 히로미초는 모두 수도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강진군은 1차 산업비율이 매우 높고 우와지마시와 히로미초는 제1차 산업비율이 4.0%(1996년)까지 낮아졌다.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 생업과 직접 이어지는 한국과 이미 농촌 지역의 고령자라고 해도 농사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문화, 서클에 의지하고 있는 일본(우와지마시, 히로미초)와의 비교는 지방도시비교라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대책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삶의 보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공동과제가 있다. 그렇지만 정책의 핵심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고령자의 삶의 보람에 대한 대책의 현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지역에서의 고령자 자립이라는 테마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양 지역의 비교 조사 연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피조사자의 속성

표 1 우와지마시 및 히로미초의 고령자 연령 구성

연령	우와지마시 및 히로미초의 고령자 연령 구성					
	총 수 (%)		남 성 (%)		여 성 (%)	
65-69	5,415	33,1	2,363	37,4	3,052	30,4
70-74	4,356	26,7	1,724	27,3	2,632	26,2
75-79	2,969	18,2	1,072	17,3	1,897	18,9
80-84	2,107	12,9	725	11,5	1,382	13,8
85-89	1,102	6,7	319	5,1	783	7,8
90이상	394	2,4	111	1,8	283	2,8
합 계	16,343	100,0	6,314	100,0	10,029	100,0

1995년 국세 조사

표 2 앙케이트 회답자의 연령 구성 (일본)

연령	우와지마시 및 근교 (히로미초)							
	총 수 (%)		남 성 (%)		여 성 (%)		무응답 (%)	
65-69	14	9,4	8	20,5	6	5,6	0	0,0
70-74	38	25,5	7	17,9	31	28,7	0	0,0
75-79	41	27,5	15	38,5	26	24,1	0	0,0
80-84	21	14,1	4	10,3	17	15,7	0	0,0
85-89	12	8,1	0	0,0	12	11,1	0	0,0
90이상	20	13,4	5	12,8	15	13,9	0	0,0
무응답	3	2,0	0	0,0	1	0,9	2	100,0
합 계	149	100,0	31	79,5	102	94,4	2	100,0

표 3 나주시 및 강진군의 고령자 구성

연령	나주시 및 강진군					
	총 수 (%)		남 성 (%)		여 성 (%)	
65-69	8,407	39,3	3,413	42,0	4,994	37,7
70-74	6,015	28,1	2,449	30,7	3,516	26,5
75-79	3,730	17,4	1,449	17,8	2,281	17,2
80-84	1,907	8,9	538	6,6	1,369	10,3
85이상	1,323	6,2	236	2,9	1,087	8,2
합 계	21,382	100,0	8,135	100,0	13,247	100,0

1995년 한국 통계청

표 4 앙케이트 회답자 구성 (한국)

연 령	나주시 및 강진군					
	총 수 (%)		남 성 (%)		여 성 (%)	
65-69	162	50,9	119	49,4	43	55,8
70-74	80	25,2	61	25,3	19	24,7
75-79	45	14,2	39	16,2	6	7,8
80-84	27	8,5	20	8,3	7	9,1
85-89	2	0,6	1	0,4	1	1,3
90이상	2	0,6	1	0,4	1	1,3
무응답	0	0,0	0	0,0	0	0,0
합 계	318	100,0	241	100,0	77	100,0

이번의 현지조사는 한·일 비교연구를 위한 선행 조사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피조사지의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쌍방의 지역은 그 나름대로 수도에서 먼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지역 거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이 있다. 또한 양 지역 모두 전통적으로 해양성이 강한 양호한 항만과 풍부한 농수산으로 성장한 도시와 근교 주변 고을이라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여기에 소개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와 문헌, 그리고 1999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일본과 한국의 현지에서의 앙케이트와 인터뷰를 통한 조사를 집계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일본에서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내의 사회복지협회 데이터 서비스시설과 시교외의 히로미초 노인복지건강 시설내의 2개소에서 앙케이트 조사와 인터뷰(15명)을 실시했다. 양 지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배포수는 149명이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농업협동조합조직과 강진군 농업협동조합조직을 통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앙케이트(32명)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배포수는 318명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현장에서 설명하고 기입해 받았기 때문에 회수율은 양쪽 다 100%이다.

이번 조사는 공동 연구의 서장으로서는, 고령자 의식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순 집계 결과만을 이용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한다.

설문 1-1. 지역

표 5 앙케이트 회답자의 지역 구성

지 역	일 본
우와지마시	96 (64,4%)
히로미초	53 (35,6%)
합 계	149 (100,0%)

표 6 우와지마시 및 히로미초의 인구 및 고령자 인구

일 본	우와지마시			히로미초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인 구	65,470	30,304	35,304	11,625	5,449	6,176
65세이상인구	13,133	5,013	8,120	3,210	1,301	1,909
고령화율(%)	20,06	16,62	23,00	27,61	23,88	30,91

일본에서는 우와지마시 96명, 히로미초 53명으로 되어 있다. 응답자 비율은 각 지역의 인구 통계(1995년 국세조사)에 비추어 보면, 우와지마시가 고령자총인구(우와지마시 13,133명, 히로미초 3,210명)의 0,7%, 히로미초가 1,7%이다.

표 7 앙케이트 회답자의 지역 구성

지 역	한 국
나 주 시	174 (54,7%)
강 진 군	144 (45,3%)
합 계	318 (100,0%)

표 8 나주시 및 강진군의 인구 및 고령자 인구

한 국	나 주 시			강 진 군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수	남 성	여 성
총 인 구	111,719	55,726	55,993	51,739	25,130	26,609
65세이상인구	14,272	5,514	8,758	7,110	2,621	4,489
고령화율(%)	12,77	9,89	15,64	13,74	10,43	16,87

한국은 나주시 174명, 강진군 144명이다. 각 지역의 인구통계 및 1995년 인구 주택 센서스 보고서에 비교하여 보면, 고령자 총 인구(나주시 14,272명, 강진군 7,110명)에 대한 회답자율은 나주시가 1,2%, 강진군 2,9%이다.

설문 1-2. 연령

표 9 고령자 세대의 한,일 비교

연 령 (세)	일 본	한 국
65-69	43 (28,9%)	162 (50,9%)
70-74	44 (29,5%)	80 (25,2%)
75-79	27 (18,1%)	45 (14,2%)
80-84	13 (8,7%)	27 (8,5%)
85-89	11 (7,4%)	2 (0,6%)
90이상	10 (6,7%)	2 (0,6%)
무 응 답	1 (0,7%)	0 (0,0%)
합 계	149 (100,0%)	318 (100,0%)

피조사자의 연령분포는 일본의 경우 70-74세(29.5%)가 가장 높고, 비슷한 수준으로 65-69세(28.9%), 그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답자중 최고령자는 92세였다.

한국은 65-69세(50.9%)가 약 반수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70-74세(25.2%), 그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회답자중 최 고령자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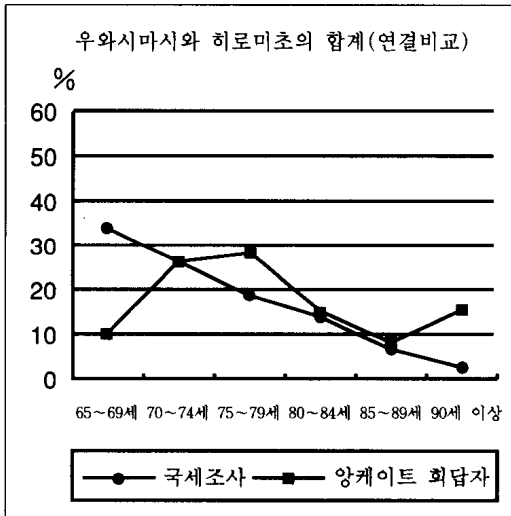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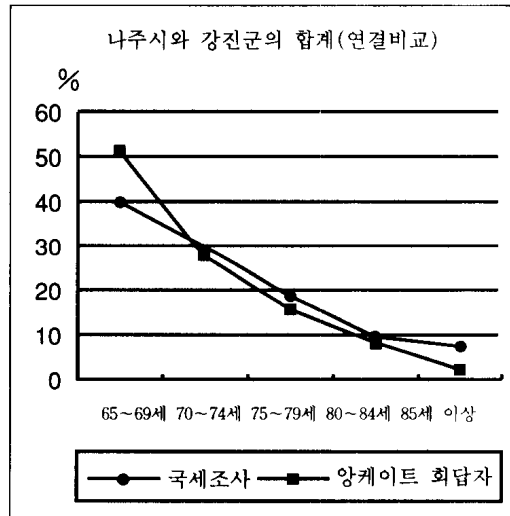


표 11



는 97세였다.

양 쪽 모두 인구 조사에서 본다면 응답자 비율은 일본의 경우 65-69세가 좀 작고, 한국은 약간 많다.

설문 1-3. 성별

표 12 성별의 한,일 비교

성 별	일 본	한 국
남 성	39 (26,2%)	241 (75,8%)
여 성	108 (72,5%)	77 (24,2%)
무 응 답	2 (1,3%)	0 (0,0%)
합 계	149 (100,0%)	318 (100,0%)

우와지마시 근교의 피조사자와 여성이 103명(72,5%)를 차지하며 남성은 39명(26,2%)에 불과한데 비해 나주시 및 근교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241명(75,8%), 여성 77명(24,2명)로 성별에서는 반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양국 모두 조사에 협력해준 시설 및 단체의 성격, 협력 멤버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부장적, 유교적인 문화(습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본의 양

케이트 조사 회답자가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고려화율이 더 높고,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은 점에서 볼때 여성 회답자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문 1-4. 가족 구성

표 13 가족 구성의 한,일 비교

가족 구성	일본	한국
혼자 산다	38 (25,5%)	112 (35,2%)
고령자부부만 산다	43 (28,9%)	114 (35,8%)
동거 세대	51 (34,2%)	92 (28,9%)
무 응답	17 (11,4%)	0 (0,0%)
합 계	149 (100,0%)	318 (100,0%)
혼자 사는 사람의 내역		남성:66 여성:46

일본은 '동거 세대' (34,2%)의 비율이 가장 높고, '혼자 산다' (25,5%)와 '고령자 부부' (26,9%)는 거의 같은 비율이었으나, 한국 쪽은 '동거 세대' (28,9%)가 일본과 비교해 낮다. 반대로 '혼자 산다' (35,2%)와 '고령자 부부' (35,8%)는 거의 같은 비율로 일본과 비교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유교적 습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점에서 동거 세대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반대로 '동거 세대'가 일본 쪽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주민 자녀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 이상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돼 지방도시 및 시골에는 젊은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 등 수도권에 취업의 기회, 학업의 기회 등이 집중돼 있는 한국 특유의 지역 구성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 도시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점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평양 벨트 지대의 일극집중이 현저한 일본의 1960년, 70년대의 지역 산업 구조와 비슷하다.

설문 1-5. 생계

표 14 고령자의 생계 구성의 한,일 비교

생 계 수 단	일 본	한 국
월급만으로 생활한다	4 (2,7%)	12 (3,8%)
연금만으로 생활한다	106 (71,1%)	14 (4,4%)
생활보호대상비로 생활한다	1 (0,7%)	33 (10,4%)
자식들의 도움으로 생활한다	1 (0,7%)	0 (0,0%)
그 외의 수입으로 생활한다	8 (5,4%)	169 (53,1%)
연금+월급	8 (5,4%)	0 (0,0%)
연금+생활보호대상	4 (2,7%)	0 (0,0%)
연금+자식들의 도움	1 (0,7%)	0 (0,0%)
연금+그 외의 수입	8 (5,4%)	0 (0,0%)
자식들의 도움+그 외의 수입	0 (0,0%)	90 (28,3%)
무 응 답	8 (5,4%)	0 (0,0%)
합 계	149 (100,0%)	318 (100,0%)

일본은 “연금만으로 생활한다”라는 회답자가 (7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연금만으로 생활한다”라는 회답자(4,4%)와 비교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빠른 점을 시사한다. 후생성에 의하면 노령 연금(노령 후생 연금)의 경우는 연간 약 200만엔 급부(어디까지나 일정의 가정에 근거한 수치)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 쪽은 조사 지역이 지방의 준농촌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4,4%로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으며, ‘그 외’가 (53,1%), 그 다음이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그 외’ (28,3%)로, 합치면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란, 농업 수입으로 크건 작건 농업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1999년 고령화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고령자 복지에 대한 제도가 이제 정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소득고령자를 위한 시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

다. 1988년에 실시된 국민 연금 수급자도 아직 적은 것이 현실이다.

설문 1-6. 서클 가입수

표 16 고령자의 서클 가입수의 한,일 비교

서클 가입 개수	일 본	한 국
미 가입	61 (40,9%)	10 (3,1%)
1 개	64 (43,0%)	175 (55,0%)
2 개	13 (8,7%)	89 (28,0%)
3 개	7 (4,7%)	34 (10,7%)
4개 이상	4 (2,7%)	10 (3,1%)
합 계	149 (100,0%)	318 (100,0%)

일본은 '1개 가입' 64명(43%)에 이어, '미가입' 61명(40,9%)의 비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높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것처럼 가치관의 다양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개 가입' 175명(55,0%)에 이어, '2개 가입' 89명(28,0%) 순서로 나타났다. '미가입' 은 10명(3,1%)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엔가의 서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정에 의한 동네 이웃관계의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형 '집단의식' 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1-7. 서클 활동의 종류

조사 항목에서 본 서클활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가목적과 성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조사한 서클을 크게 3개로 나눠 분류한다.

첫째는 '반사회', '자치회', '부인단체', 노인회' 등 지역의 공적 상호 협력 서

클, 둘째는 '상가 번영회', '농협', '어협' 등 생업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협동적 서클, 셋째는 '스포츠', '취미클럽', 취미, 삶의 보람, 여가적 서클로 나뉘어 진다. 양국 모두가 '노인회'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이것은 양국 모두가 노인회관과 노인대학 등이 노후 여가의 장소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16 고령자 가입 서클의 종류 비교

서클의 종류	일 본	한 국
반 상 회	12 (9,4%)	40 (13,0%)
자 치 회	6 (4,7%)	12 (3,9%)
부 인 단 체	6 (4,7%)	22 (7,1%)
노 인 회	36 (28,3%)	111 (36,0%)
상가번영회	1 (0,8%)	5 (1,6%)
어 협	0 (0,0%)	0 (0,0%)
농 협	9 (7,1%)	101 (32,8%)
생 협	0 (0,0%)	0 (0,0%)
스 포 츠	8 (6,3%)	0 (0,0%)
취미 모임	30 (23,6%)	7 (2,3%)
기 타	19 (15,0%)	10 (3,2%)
합 계	127 (100,0%)	308 (100,0%)

그리고 일본측의 특징으로서는 생업상의 서클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저조하고 취미, 삶의 보람으로서의 여가적 서클에의 가입율이 높다. 이것은 노후의 여가 시간으로서 개인의 취미, 삶의 보람을 합친 서클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선택의 기준이 넓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노인들의 취미, 스포츠 서클의 종류는 시조, 단가, 습자, 종이 접기, 카루타, 양재, 원예, 시, 민요, 카라오케, 가야금, 역사, 자원봉사, 게트볼, 수영, 탁구, 건강대학 등이었다. 반면 한국은 지역의 상호 보조적 서클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으

로 생업상의 서클비율이 높았으며, 취미, 삶의 보람으로서의 여가적 서클에는 가입자가 없었다.

현재, 조사지구처럼 한국의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사회에서는 농협이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며,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농협에 소속되어 있다. 농협이 고령자와 주부 등의 삶의 보람 대책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 농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취미, 삶의 보람으로서의 서클 가입율이 0에 가까운 것은, 취미 등의 서클이 다양하지 않으며,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인회'에 있어서도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장기, 바둑, 화투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많은 점을 본다면 일본에서 말하는 취미, 삶의 보람이라는 서클 기능은 '노인회'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업등의 생산활동이 고령자의 삶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3) 거주지에 대한-만족도-단일 집계 결과 비교-

설문 2. '귀하는 현재의 거주지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일본은 현재 일상 생활을 하고있는 거주 지역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39,6%), '그저 그렇다' (38,9%)라고 대답한 사람을 합치면 78,5%로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5,4%), '만족하지 않는다' (4,0%)라고 대답한 사람은 모두 9,4%로 상당히 적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 (4,1%), '만족한다' (51,6%)라고 대답한 사람을 합치면 55,7%인데 비해, '그저 그렇다' (28,6%), '만족하지 않는다' (12,3%)라고 대답한 사람은 모두 40,9%로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한일 모두 제일 높지만 비율면에서 한국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은 지

표 17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일 본	한 국
매우 만족한다	59 (39,6%)	13 (4,1%)
만 족 한 다	58 (38,9%)	164 (51,6%)
그저 그렇다	8 (5,4%)	91 (28,6%)
만족하지 않는다	66 (4,0%)	39 (12,3%)
상관하지 않는다	12 (8,1%)	7 (2,2%)
모르겠다	6 (4,0%)	4 (1,3%)
합 계	149 (100,0%)	318 (100,0%)

방의 중소 도시에도 취직, 학업의 기회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되어 왔고, 사회적 기반이 정비되어, 지방의 특징을 살려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방주민이 가지고 있는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한 “동향의식”은 강하지만, 그것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4.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표 18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

	일 본	한 국
매우 만족한다	31 (20,8%)	5 (1,6%)
만 족 한 다	50 (33,6%)	138 (43,4%)
그저 그렇다	45 (30,2%)	119 (37,4%)
만족하지 않는다	12 (8,1%)	32 (10,1%)
상관하지 않는다	8 (5,4%)	18 (5,7%)
모르겠다	3 (2,0%)	6 (1,9%)
합 계	149 (100,0%)	318 (100,0%)

일본은 '아주 만족한다' (20.8%), '만족한다' (33.6%)를 합치면 54.4%, '그저 그렇다'가 30.2%로 나타나며, '약간 불만이다' (8.1%)와 '불만이 크다' (2.0%)를 합치면 13.5%로 나타났다.

한국은 '아주 만족한다' (1.6%), '만족한다' (43.4%)를 합쳐 45.0%로 일본보다 낮다. '그저 그렇다' (37.4%로 나타났으며, '약간 불만이다' (10.1%)와 '불만이 크다' (5.7%)를 합치면 일본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집계결과 한국쪽이 '아주 만족한다'가 극단적으로 낮음으로써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은 한마디로 단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과거 지방에서 나타난 경향이지만, 한국사람도 실제 생활에는 만족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설문 5. '귀하의 생활환경은 지난 5-6년 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측은 '어느 쪽도 아니다'가 56.4%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나빠졌다' (24.2%), '좋아졌다' (29.5%)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쪽은 '좋아졌다' (42.8%)로 가장 많으며, '어느 쪽도 아니다' (25.5%), '나빠졌다' 2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5-6년간의 상황에서 보면 거품경제 붕괴 후 전체적으로 경제가 냉각되고 구조 조정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느끼고 있음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IMF관리체제 아래이긴 하지만 근년의 경제상황과 함께 생활기반이 정비,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좋아졌다'라는 대답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질문에서 '최근 5-6년 전'이라는 것을, 현재의 한국 고령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곤란한 시기(식민지시대, 6.25전쟁, 정치적 시련과 식량난, 보리 고개) 등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식주를 과거의 생활과 비교하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게 돼 이런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해석 할 때는 각각의 응답자가 무엇을 지표로 삼아 대답을 했는가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지는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양국모두 '나빠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요인 (불황, 퇴직 등의 경제적 사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9 생활 환경 만족도

	일 본	한 국
매우 만족한다	31 (20,8%)	5 (1,6%)
좋아졌다	29 (19,5%)	136 (42,8%)
나빠졌다	36 (24,2%)	77 (24,2%)
어느쪽도 아니다	84 (56,4%)	81 (25,5%)
모르겠다	0 (0,0%)	24 (7,5%)
합 계	149 (100,0%)	318 (100,0%)

설문 6. '귀하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20 부모와 자식, 동거, 별거 기대도

	일 본	한 국
함께 사는 것이 좋다	53 (35,6%)	90 (28,3%)
따로 사는 것도 좋다	44 (29,5%)	109 (34,3%)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8 (25,5%)	105 (33,0%)
모르겠다	14 (9,4%)	14 (4,4%)
합 계	149 (100,0%)	318 (100,0%)

일본의 경우, '함께 사는 것이 좋다'가 35.6%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따로 사는 것이 좋다' (29.5%),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25.5%)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따로 사는 것이 좋다' 34.3%로 가장 높으며, 그것과 비슷한 비중으로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3.0%), '함께 사는 것이 좋다' (28.3%)로 나타났다.

이것들은 전항에서 말 한대로 '가족구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좋다'와 '부모가 건강할 때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를 합하면 약 6할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조사에서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한 사람 중에는 '함께 살면 트러블의 원인' 이다라고 코멘트를 붙인 것도 있었다. 단순히 따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대답자중에는 '함께 살면 신경이 쓰이니까 본가와 분가의 관계가 좋다'라고 쓴 사람도 있다. 이에 미루어 보아,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경을 너무 쓰고 싶지 않지만, 근처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안에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도 '따로 사는 것이 좋다'의 응답율이 가장 많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말한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고령자는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전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들이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사회상황 때문에 자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만 하면 집안 일이 모두 순조롭게 되어 간다는 생각이 강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자식의 짐이 돼 어서는 안 된다 라는 헌신적인 이유 때문에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을 사람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거 별거에 관한 분석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한 것이다.

설문 7. '귀하는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21. 노후 자녀들로부터의 생활지원 기대

	일 본	한 국
미 가 입	61 (40.9%)	10 (3.1%)
기대하고 있다	19 (12.8%)	109 (34.3%)
기대하지 않는다	121 (81.2%)	176 (55.3%)
모 르 겠 다	9 (6.0%)	33 (10.4%)
합 계	149 (100.0%)	318 (100.%)

일본은 '기대하지 않는다' (81.2%)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대하고 있다' 고 한 사람은 12.8%뿐이다. 한편 한국은 '기대하지 않는다' (55.3%)가 약 반수를 차지하며, '기대하고 있다' 는 34.3%로 일본에 비해 높다.

이 결과만으로 본다면 일본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앙케이트의 자유 서술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생활비의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의 원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저녁식사를 가끔가다 한번씩 함께 하기를' 이라는 식으로 작은 정성을 기대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동시에, 연금제도의 발전으로 생활비 자체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취직 및 취학지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일본에서 본 것처럼 '작은 정성' 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그리고 노후에도 농촌부의 50%, 도시부 30%의 노령자가 일을 함으로써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실의 보고(1994년)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도시부의 50%, 농촌부 40%의 사람들이 자식으로 부터의 생활비(보조)를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 중에서 도시부의 30%, 농촌부의 25%가 장남부부로부터의 생활비(보조)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같은 비교에서 보면 '자식들의 도움' 은 한국 3.9%에 비해 일본은 56%라는 보고가 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한국에서는 노후를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설문 8. '귀하는 노후생활과 관련된 세금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우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 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29.5%),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이 적당하다' (26.8%)로 현재보다 더 많은 제도의 충실을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의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많다. 더 이상의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도의 충실을 희망하지 않는다거나, 세금 부담이라는 그 자체의 경감을 희망하거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다' (23.5%)로 대답한 사람 등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서비스와 세금의 부담

	일 본	한 국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 서라면 지금 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44 (29.5%)	56 (17.6%)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이 적당하다	40 (26.8%)	113 (35.5%)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 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다	35 (23.5%)	96 (30.2%)
잘 모르겠다	30 (20.1%)	53 (16.7%)
합 계	149 (100.0%)	318 (100.0%)

일본은 벌써부터 가족에 의한 개호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가율의 상승 등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체에 의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배경이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희망한다' 라는 대답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이 적당하다' (35.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 (30.2%)로 생각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제도 충실을 위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중에 1명꼴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17.6%)로 대답한 사람은 일본이 3명중 1명이라는 비율에 대하여 한국은 4명중 1명에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라는 대답율이 일본에 비하여 낮은 점이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1991년 보고에 의하면 '노후대책'은 61.0%가 '대책없음'으로 대답을 했으나, 1994년에는 47.0%까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연금'이 13.4%에서 16.0%로 증가하였으며, 보험이 11.2%에서 16.1%로, 저금이 10.4%에서 17.8%로 증가하는 등, 노후에 대한 대비가 착실히 충실해지고 있다.

이 통계에서는 한국 특유의 조사로 생각되는 '부모의 노후 부양책임에 관한 자

식의 태도' (1994년)에는 나주시가 '자식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7.3%로 높았으며, 강진은 87.5%였다. 흥미진진한 것은 도시 지역인 나주시에서, '장남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7.3%인 점에 대해, 농촌부인 강진은 27.7%로 더 높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 는 나주시 31.2%, 강진 21.8%,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는 양쪽 모두 27%였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새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대답결과가 나왔다.

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과 한국은 가족관과 복지관에 관한 의식이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단순 집계에서 본 총괄--마무리

한,일 양국의 의식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조사지역의 비교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 특히 제1차 산업구조비율이 높은 한국지역과 이미 농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그 비율이 낮은 일본 등 서로 다른 특색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전향에서, 한국은 '혼자 산다' 는 것이 많았고, (35.5%, 일본은 25.2%), 그것과 함께 '고령자 부부만' 이라는 것도 한국이 많았다.(34.2%, 일본은 28.9%) 핵가족화한 사회라고 생각한 일본에 오히려 '함께 사는 세대' 가 많은(34.2%, 한국은 28.9%)결과가 나왔다. 고령자들의 '연금생활'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71.1%)에 비하여, '자식들로부터의 생활비 지원' (28.3%)과 '생업으로서의 농업 등' (81.4%)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선명하게 틀린 점이 드러났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일본은 '자식들로부터의 생활비 지원' 에 기대하지 않는다.(81.2%)라는 자세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55.3%가 기대하고 있다. 생활을 지탱하는 사회제도나 가계의 틀린 점은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고 대답한 일본 35.6%, 한국 28.3%와 '따로 사는 것이 좋다' 고 대답한 한국 34.3%, 일본 29.5%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 '따로 살기' 를 희망하며, 일본이 '함께 살기' 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서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33.0%에 비해, 일본 25.5%이다. 한국은 몸이 약해질 때까지는 생업에 힘을 쏟으며, 따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4명중 1명이 평생연금으로 생활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식배경의 틀린 점이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는 응답에서 일본(29.5%)의 높은 응답율과 한국의 17.6%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서 한국(30.2%)과 일본(23.5%)의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제도에 의존하려는 일본과 생업으로 자립을 하려는 한국의 차이점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5) 몇 가지 상관에서 본 가족 세대관--부모, 자식의 생활 방식의 이상과 현실

단순 집계의 결과를 가지고 부모, 자식의 생활 방식과 생활의 만족도, 지역에 대한 매력, 자식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제에 대한 노후의 기대 등이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틀린 점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A) 현재의 가족 구성에 따른 요인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75세 이하의 사람(전기 고령자)은 '부부끼리만 산다'라는 사람이 40.4%,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는 36.1%, '혼자 산다' 23.4%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75세 이상의 사람(후기 고령자)은,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가 38.8%, '혼자 산다'가 32.9%, '부부끼리만 산다'가 28.2%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첫째, 여성의 평균 수명(남성 77.19세, 여성 83.82세, 1997년)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남녀별의 가족 구성을 보면 남성의 경우 '부부만 산다' (48.7%),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 (20.5%), '혼자 산다' (15.4%)로 되어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동거세대

(자식과 함께 산다)' (38.0%), '혼자 산다' (30.6%), '부부끼리만 산다' (22.2%)로 되어 있다.

75세 이상이 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부끼리만 산다'의 비율은 줄어, 여성의 '혼자 산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 쪽에서 자식과의 '별거(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높다. 즉 여성 34.6%, 남성 15.4%의 비율에서 보듯 여성의 '혼자살기'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75세 이하(전기 고령자)와 75세 이상(후기 고령자)를 나누어 보아도, 단순 집계와 같은 비율로서 차이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 69.9세, 여성 77.8세(1994년)로서, 일본과 비교하여 남성이 약 7세, 여성은 6살 낮다. 한편 85세 이하 기준으로 보면, 약 7할이 '동거(자식과 함께 산다)'하고 있지 않으며,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85세이상부터 라는 것을 양케이트 결과로서 알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는 자식과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산다'와 '부부끼리만 산다'의 비율과, '배우자가 있다'와 '배우자가 없다'는 비율이 비슷하다. 대부분이 단순히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끼리만 산다'거나 '혼자 산다'로서, 처음부터 자식과의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 있으며,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부모가 85세를 지나서라는 구도가 보이고 있다. 부모가 85세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식도 고령자 세대에 들어서는 시기다.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나와있던 자식이 정년퇴직을 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모시고 생업으로서의 농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양국 모두 나이를 먹으면 신체적 불안과 생활의 자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동거'(자식과 함께 산다)를 하는 경향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동거(자식과 함께 산다)'는 비율도 한,일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 배경의 한가지는 조사지역의 산업구조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은 제1차 산업 구성율이 4.0%(1995년), 한국 48.7%(1998년)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이것은 고령자의 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은 비교적 지역 구조적인 면에서 고령자 자신의 의식이 중요하게 작

용한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연령, 지역, 경제적 측면, 신체적 불안, 가사 등 생활자립의 곤란만이 아니라 그 외의 주택사정, 지역에 대한 애착, 부모, 자식간의 애착, 부모, 자식의 생활 방식에 대한 양쪽의 의식도, 현재의 세대 구성요인으로 고려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B) 세대구성이 지역에 관한 매력, 생활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현재의 거주지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세대 구성별 분포를 보면(‘불명’을 제외함), 일본의 경우 ‘부부끼리만 산다’ 세대가 거주지에 만족하고 있으며(92.8%), 그 뒤를 이어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86.7%), ‘혼자 산다’(78.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부끼리만 산다’(61.2%),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56.1%), ‘혼자 산다’(78.8%)의 순서로 되어 있다. 한,일 양국모두 거주지에 관한 만족도는 ‘부부끼리만 산다’의 세대가 가장 높은 것처럼, 세대에 따라 순위의 차이는 없지만, 구성 비율에서는 다소의 차이점이 보인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를 세대 구성별로 보면(‘불명’을 제외함), 일본의 경우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가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62.2%), 그 다음으로 ‘부부끼리만 산다’(61.9%)로서 비슷한 비율이며, ‘혼자 산다’(48.5%)의 순서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부끼리만 산다’(53.1%), ‘동거세대(자식과 함께 산다)’ 48.3%, ‘혼자 산다’(38.1%)로 나타났다. 역시 ‘혼자 산다’ 세대는 한일 양국 모두 ‘거주지에 관한 만족도’,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고령자의 의식 속에 세대 구성의 내용에 따라 생활과 지역에 관한 만족도는 상관 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C) 자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의 기대도

단순 집계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자식에게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일

본이 약 8명중 1명(12.8%), 한국이 3명중 1명(34.3%)로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기대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성별, 세대주, 그리고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고령자 세대 전체의 남녀별에서 일본은 '남성' (15.4%), '여성' (12.1%)로 '남성'이 자식에게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에 관한 회답에서는 남성이 '동거(자식과 함께 산다)' (43.6%)로 가장 높고,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4.6%)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3.6%)가 거의 같은 비율이며,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 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21.5%)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일본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 쪽이 자식에게 지원을 기대하거나,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남성' (32.5%), '여성' (40.3%)로 일본과 반대로 '여성' 쪽이 기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자식과의 생활'에 관해서는 남성이 '따로 사는 것이 좋다' (36.7%)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2.9%), '함께 사는 것이 좋다' (27.1%) 순서였다. 여성은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3.8%)로서, '함께 사는 것이 좋다' (32.5%)와 거의 같은 비율이다. 이어서 '따로 사는 것이 좋다' (27.3%)로 되어 있어 한국의 경우, 일본과는 반대로 '여성'이 자식에게 지원을 기대하거나,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를 나누어 본 경우, 일본은 '전기' (7.1%), '후기' (21.7%), 한국에서는 '전기' (28.9%), '후기' (52.0%)로 양국 모두 '후기' 고령자의 기대율이 '전기'와 비교하여 약 2-3배 높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에서도 '따로 사는 것이 좋다'를 희망하는 비율은 일본 30.6%에서 26.7%로, 한국은 37.2%에서 25.3%로 감소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본다면 나이를 먹어 가면 갈수록 자식에게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면, 현실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를 맞추어 부모와 동거를 시작하는 세대가 일반적인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귀하는 현재의 거주지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

는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상관 관계는, 일본은 거주지에 관한 만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식의 지원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으며, 한국에서는 반대로 거주지에 관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식의 지원을 기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조사 지역이 순 농촌 지역이며, 피 조사자의 대부분이 논밭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보람이 지역과 함께 한다는 등의 차이점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세금의 부담에 관한 의견’ 과 ‘자식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의 기대도’ 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자식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약 1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33.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이 적당하다’ (30.0%),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다’ (17.2%)의 순서로 되어 있다. 자식에게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는 사람 중에서 3명중 2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등의 충실을 기대하면서도, 아직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 부담은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식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사람이 약55%나 된다. 그 중에서 복지의 충실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이 적당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3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다’ (21.6%),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16.4%)로 집계됐다.

한국은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보장정책에 기대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노후의 생활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도모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식으로부터의 생활비지원과 자식이 정년 퇴직 후 고향에 돌아와 ‘함께 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징적인 것은, 세금 부담을 각오하면서 복지의 충실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본은 33.4%인데 반해 한국은 16.4%라는 차이점이다. 이것은 한.일의 고령자의

식의 차이점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 수준의 차이, 재정력의 차이, 지역 산업 구조의 차이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이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 인지는 현재의 조사 연구단계에서는 확증하기 어렵다.

표 23 지역에 관한 매력도와 생활만족도의 상관 관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합 계
아주 만족한다	14.8/0.6	4.0/0.9	0.7/0.0	0.0/0.0	1.3/0.0	0.0/0.0	20.8/1.6
만족한다	12.8/2.5	15.4/37.1	3.4/2.8	0.7/0.3	0.7/0.3	0.0/0.3	32.9/43.4
그저 그렇다	6.0/0.6	16.8/10.7	0.7/20.8	1.3/3.1	4.0/1.6	2.0/0.6	30.9/37.4
좀 불만이다	2.7/0.0	2.7/1.9	0.7/3.1	0.0/4.7	0.7/0.3	1.3/0.0	8.1/10.1
불만이 크다	2.7/0.3	0.0/0.0	0.0/1.3	1.3/3.8	0.7/0.0	0.7/0.3	5.4/5.6
잘 모르겠다	0.7/0.1	0.0/0.3	0.0/0.6	0.7/0.3	0.7/0.0	0.0/0.6	2.0/1.9
합 계	39.6/4.1	38.9/50.9	5.4/28.6	4.0/12.3	8.1/2.2	4.0/1.9	100.0/100.0

*일본/한국(%), 소수점 이하 두자리는 사사오입

표 24 노후 자식과의 동거에 대한 바람과 자식들로 부터 생활비 보조 기대에 관한 상관

	자식과의 동 거	자식과의 별 거	몸이 허약해지면 동거	무 응 답	합 계
기대한다	3.4/16.4	3.7/7.9	4.7/10.1	1.3/0.3	12.8/34.6
기대 안한다	30.9/10.7	26.2/24.5	18.1/18.2	6.0/1.9	81.2/55.3
무 응 답	1.3/1.3	0.0/1.9	2.7/4.7	2.0/2.2	6.0/10.1
합 계	35.6/28.3	29.5/34.3	25.5/33.0	9.4/4.4	100.0/100.0

*일본/한국(%), 소수점 이하 두자리는 사사오입

표 2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도와 자식에 대한 기대도에 관한 상관

	복지 등의 충실을 기대	현재 유지	세금부담의 경감을 희망	무응답	합계
기대한다	4.7/3.8	4.0/16.4	2.0/8.5	2.0/6.0	12.8/34.6
기대 안한다	23.5/13.2	22.1/17.9	20.1/17.9	15.4/6.3	81.2/55.3
무응답	0.7/0.6	0.7/1.3	1.3/3.8	3.4/4.4	6.0/10.1
합계	28.9/17.6	26.8/35.5	23.5/30.2	20.8/16.7	100.0/100.0

*일본/한국(%), 소수점 이하 두자리는 사사오입

참 고 문 헌

- 이노우에 히사코 '韓國社會保障制度素描' 追手門經濟論集, 1990.
이노우에 히사코 '韓國社會保障의 發展' 追手門經濟論集, 1992.
가나모리 히사오 '高齡化社會의 經濟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92.
히구마 타케요시 他 '高齡化社會와 地域福祉에 關한研究' (1)-(5) 히로시마修大論文集, 1994-99
이노우에 히사코 '社會指標에서 본 韓國의 社會開發' 追手門經濟. 經營研究, 1995.
김 중현 '韓國의 經濟' 와세다大學出版部, 1995.
박 재간 '高齡化社會의 危機와 挑戰' 나남出版, 1995.
統計廳 (韓國), 1995人口住宅總調查報告書, 1995.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 '生活構造의 韓日比較' 大藏省印刷局, 1996.
이 규억 '日本의 行政革命' 産業研究院, 1997.
미야모토 신이치 '우와지마시에 대한 地域福祉의 現在와 問題點' 에히메女子短期大學紀要, 1998.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研究所 '人口의 動向, 日本과 世界' 厚生省統計協會, 1998.
니시나 켄이치 '韓國의 福祉, 希望과 現實' 社會評價社, 1998.
현 외성 '韓國老人福祉公論' 裕豐出版社, 1998.
統計廳 (韓國), '韓國의 社會指標' 1998.
社會福祉部 (韓國), 保險福祉白書, 1998.
히로시마현福祉保健部, '在宅高齡者基者本調查結果' 히로시마현, 1999.
高齡者福祉課, '高齡者人口等集計表' 에히메현, 1999.
이 혜원 '老人福祉論(理論과 實際)' 裕豐出版社, 1999.
최 순남 '現代老人福祉論' 한신大學校出版部, 1999.
김 성순 '高齡化社會와 福祉行政' 弘益濟, 1999.
김 익기 '韓國老人의 삶(診斷과 展望)' 未來人力研究센터, 1999.
이 연희 '老人과 韓國社會' 社會文化研究所出版部, 1999.
保健福祉部 (韓國), 1999年度 主要業務參考資料, 1999.
全羅南道, 全羅南道統計 (夏, 여름호), 1999.

협 력 기 관

일본: 히로시마현청, 에히메현청, 우와지마시청, 우와지마 사회복지협의회, 히로미초 데이 서비스센터
한국: 전라남도도청, 나주시청, 강진군청, 농협중앙회 나주시시부,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광주 일보사
그리고 이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한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광주 전남지역본부 장세영 부분부장
님이 한국의 양케이트의 배부, 회수의 책임자로 담당했으며, 현지 안내는 광주 일보사 편집국 사
회2부 이종헌부장대우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와지마시 및 한국 조사의 코디네이트는 악
시언대표 무카이 미츠오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령자(高齢者) 의식조사

—한·일 비교 조사연구—

문1. 귀하는?

- (1) 거주지:
- (2) 연령(年齡):
- (3) 성별: 1. 남성 2. 여성
- (4) 가족구성(연령·성별):

(5) 생계수단:

- 1. 월급 2. 연금 3. 생활보호대상
- 4. 자식들의 도움
- 5. 기타()

**문2. 귀하는 현재의 거주지에 어느정도 만족
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는다
- (5) 상관하지 않는다 (6) 모르겠다

※하고싶은 말:

**문3. 귀하는 지금 어떤 단체에 참여하고 계
십니까?**

- (1) 반상회 (2) 상조회 (3) 부인회
- (4) 노인회 (5) 번영회 (6) 농 협
- (7) 수 협 (8) 축 협
- (9) 스포츠()
- (10) 친목회()
- (11)기 타()

**문4.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아주 만족한다 (2) 만족한다
-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불만이다
- (5) 불만이 크다 (6) 잘 모르겠다

**문5. 귀하의 생활환경은 지난 5~6년전과
비교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좋아졌다 (2) 나빠졌다
- (3) 어느쪽도 아니다 (4) 모르겠다

**문6. 귀하는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함께 사는 것이 좋다
- (2) 따로 사는 것이 좋다
- (3) 부모가 건강할 때는 따로 살고,
허약해지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 (4) 모르겠다

**문7. 귀하는 노후에 자녀들로부터 생계지침
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1) 기대하고 있다 (2) 기대하지 않는다
- (3) 모르겠다

**문8. 귀하는 노후생활과 관련된 세금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보다 충실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도
괜찮다
-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세금은
지금도 적당하다.
- (3)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줄이는 것이 좋
다.
- (4) 잘 모르겠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사 팀	
<한국측>	서영진(徐榮鎧) 히로시마슈도(修道)대학 객원교수 장세영(張世榮)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일본측>	日隈龍王(히구미)히로시마슈도(修道)대학 교수 宮本博一(미야모토) 에이메(愛媛)여자대학 교수